

# 광주시·10개 기초지자체 '상생·협력' 손잡다

5개구, 나주·화순·장성·함평·담양군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구성 공동발전 주력

전남대병원-5개 시·군 병원 원격시스템 구축

광주시와 나주시 등 광주·전남 11개 자치단체가 상생·협력을 위해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동발전에서 시동을 걸었다. 선도사업으로 전남대병원과 5개 시·군 병원 응급실 간 원격 협진시스템 구축, 지역 농식품 로컬푸드 판매장 개설, 광역 교통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국제대나무박람회, 국제농업박람회 등 지역 행사

와 관련한 공동 홍보, 참가 등 상생 협력에 주력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해 시의회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2일부터 8일간 열린 예정인 시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광역 지자체와 인접 기초 지자체가 상생·협력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지역에서는 처음이다.

광주시를 비롯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 등 5개 자치구와 전남에서는 나주시·화순군·장성군·함평군·담양군 등 모두 11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이 협의체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광주시장과 5개 시·군 단체장 후보 등이 주민 생활편의 도모와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추진에 합의한 뒤 구체화한 결과물이다.

나머지 지자체도 조만간 같은 내용의 규약을 만들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르면 9월 중으로 실무협의회를 가진 뒤 10월에는 단체장이 참여하는 행정협의회를 열 계획이다.

협의회는 산업, 문화, 교육 등 분야별 지

역 연계 발전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과 홍보, 행정정보 교환, 각종 축제·행사 참여 등 교류활동 등을 하게 된다.

다만 추진 과제 중 광주-화순 광역철도 건설 등 일부는 전문적인 예산 소요 등 국가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인접 시·군은 역사 문화적으로 한 뿌리이고 공동 발전을 위해 상호 보완 관계라는 점에서 배려와 신뢰 속에서 실질적인 협력과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면서 "협의회 규약이 만들어지는 대로 지자체 간 상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

## 가거도·홍도 등 신안 4개섬 24시간 응급 진료

복지부·전남도, 보건지소 신축·장비 45억 지원

가거도·홍도·하의도·암태도 등 전남 신안군의 4개 섬주민들도 24시간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거도는 지난 3월 북통을 호소하는 어린 이 환자를 후송하기 위해 출동했던 해경 헬기가 추락했던 곳이다.

보건복지부와 전남도는 지난 31일 "의료 취약지 보건기관 지원 공모를 통해 신안군 4개 섬지역 소재 보건지소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시설 신축과 장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 보건지소는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처치실은 물론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등 시설과 자동 혈액분석기,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치과유닛 등 의료장비를 갖추게 된다. 보건지소에 응급 처치 및 환자 이

송 전 진단 등의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복지부는 가거도·홍도 보건지소의 이전 신축비용 29억3000만원, 암태면·하의면 보건지소 증축 및 장비 구매 비용 16억6000만원 등 모두 45억 9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540명과 574명이 거주하고 있는 가거도와 홍도에는 지난해 각각 31명과 11명의 응급환자가, 2038명과 2264명이 살고 있는 하의도와 암태도에는 각각 189명과 187명의 응급환자가 발생했다.

가거도, 홍도, 하의도에는 민간의 의료기관이 없으며, 암태도에는 3곳의 병의원이 영업중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섬주민 물류비 지원

전 공산품으로 확대를”

전남도, 해수부에 건의

전남도가 교통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비싼 가격에 생필품을 구입하는 섬 주민들을 위해 물류비 지원 품목을 전체 공산품으로 확대해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지금까지는 여객 및 차량 운임 일부와 40개 종류의 생필품만에 대한 물류비를 지원해왔다.

전남도는 지난 31일 “올해 9개 시·군의 연륙되지 않은 섬 205곳에서 거주하는 8만7000명의 주민에게 여객 및 차량 운임 107억원, 생필품 물류비 17억원 등 모두 12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여객운임은 최대 88%, 차량운임은 20%를 지원하고, LPG 가스와 밀가루, 설탕, 라면, 식용유 등 생필품 40종에 대해서는 내륙과의 가격을 비교해 그 차액을 내준다.

전남도는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물류비 지원 품목이 제한돼 있어 섬 주민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전체 공산품으로 확대해줄 것과 여기에 드는 비용의 절반을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양수산부는 연말까지 ‘도서지역 생필품 운송 지원방안’ 용역을 추진중이다.

한편 전남도는 이제까지 여객·차량 운임으로 7개 시·군 도서민 169만명과 차량 22만6000대에 69억원을, 생필품 물류비로 LPG 8만1000통 등에 7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연구원장 후보 인사청문 협약 지난 31일 광주전남연구원장 후보 인사청문을 위한 협약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주경남 광주시의회 행사위원장,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 김수삼 광주전남연구원이사장,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강성희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장.

##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허가 ... 시·도간 통합 첫 사례

행정자치부

광주·전남연구원이 서로 다른 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이 통합하는 전국 첫 사례가 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1일 “광주시와 전남도가 신청한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 설립계획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연구원은 광주의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의 전남발전연구원을 통합한 기관이다. 광주·전남연구원 통합은 정부의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 중 ‘유사·중복기능 조정’ 과제에도 선정된 바 있다.

출범 때부터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공동 출연·설립한 연구기관은 있었지만 서로 다른 자치단체가 각각 설립한 출연기

관이 통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은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 소재지인 광주와 무안에서 내년까지 업무를 수행하며 2017년 나주 혁신도시로 입주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광주·전남연구원 출범으로 생활권·역사성이 동일한 광주·전남의 공동 의제가 행정구역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연간 5억50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광주·전남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공동 개최한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지난 31일

광주·전남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협약식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시도의회의 연구원 관찰 상임위원회 위원 등으로 5명씩 총 10명을 구성하고, 연구원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는 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가 번갈아 주관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번에는 전남도의회가 주관한다.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인사청문회를 주관한 시도의회 의장은 경고보고서를 작성해 광주·전남연구원에 보낼 계획이다. 앞서 시도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초대 원장을 공모했으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해 재공모해 12명이 응모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 광주·전남 주요기관 국감일정

일시	장소	기관
9월 15일 오전 10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청	
9월 15일 오후 2시	전남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
9월 18일	대전ETRI	광주과기원
9월 18일 오전 10시	한국전력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 KDN, 기초전력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 평가원,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9월 21일 오전 10시	광주국세청	광주국세청
9월 22일 오전 10시	한국은행 전북본부	한국은행 광주본부
10월 1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노동청	광주지방노동청
10월 5일 오전 10시	국회	영산강유역환경청
10월 6일 오전 10시	전남도청, 국회	전남도, 전남대·전남대병원
10월 6일 오후 2시	전남도청	전남지방경찰청

## 광주·전남 국정감사 15일 시작

광주·전남지역 주요 기관들에 대한 2015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표 참고>

지난 31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거나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확정된 국정감사 일정에 따르면 우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15일 오전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시청에 이어 오후 2시 전남도교육청에서 전남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기로 했다.

이어 18일에는 산업통상자원위가 빛가람 광주전남혁신도시를 방문해 오전부터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한전 KPS, 한전 KDN, 기초전력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할 예정이다. 같은 날 광주과기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대전ETRI에서 열린다. 21일에는 기획재정위가 광주국세청

에서 광주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 뒤, 22일 오전 한국은행 전북본부로 자리를 옮겨 한국은행 광주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다.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고 10월1일에 환 경노동위의 광주지방노동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부산지방노동청에서 예정돼 있고, 5일에는 국회에서 영산강유역환경 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할 예정이다.

6일에는 안전행정위가 전남도청에서 오전에는 전남도청에 대해, 오후에는 전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전남대와 전남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한편, 광주지방·고등법원과 광주지 방·고등검찰청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대전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정확한 일정은 잡지 못한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의원**

# ICL(안내렌즈삽입술)

ICL이란?  
ICL(Implantable Contact Lens-안내삽입콘택트렌즈)수술이란 고도근시 및 원시의 시력교정을 위해 개발된 시력교정수술로 각막은 그대로 보전한 채 특수 고안된 렌즈를 수정체 앞에 삽입하여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각막두께가 얇거나 심한 안구건조증 또는 각막질환으로 인해 라식, 라섹이 어려운 경우 ICL수술로 시력을 교정 할 수 있습니다.

● 렌즈삽입술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최신 설비를 갖춘 전문 병원에서 충분한 노하우를 가진 의사에게 시술을 받아야 안전 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과 스마일/라식/라섹/ICL/백내장/녹내장/망막/눈성형/노안

www.brighteye.co.kr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증-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